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TRUMP 대통령의 생활 보호 대상자 규정이 발효되도록 허락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Trump 행정부가 차별적인 생활 보호 대상자 규정을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며 전국의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끊임없는 공격을 더욱 강화하기만 할 것입니다.

Trump 행정부는 미국 전역의 이민자 지역사회에 대한 잔인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 규칙은 그 냉혹한 추세와 연장입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규정은 명확히 유색인 저소득층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가난에 대해 차별하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미래의 영주권을 추구할 능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해안에서 피난처와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미국인의, 또한 뉴욕 주민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항상 이민자 이웃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서서 도움을 제공하고 매번 Trump 행정부의 공격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이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수용의 불빛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